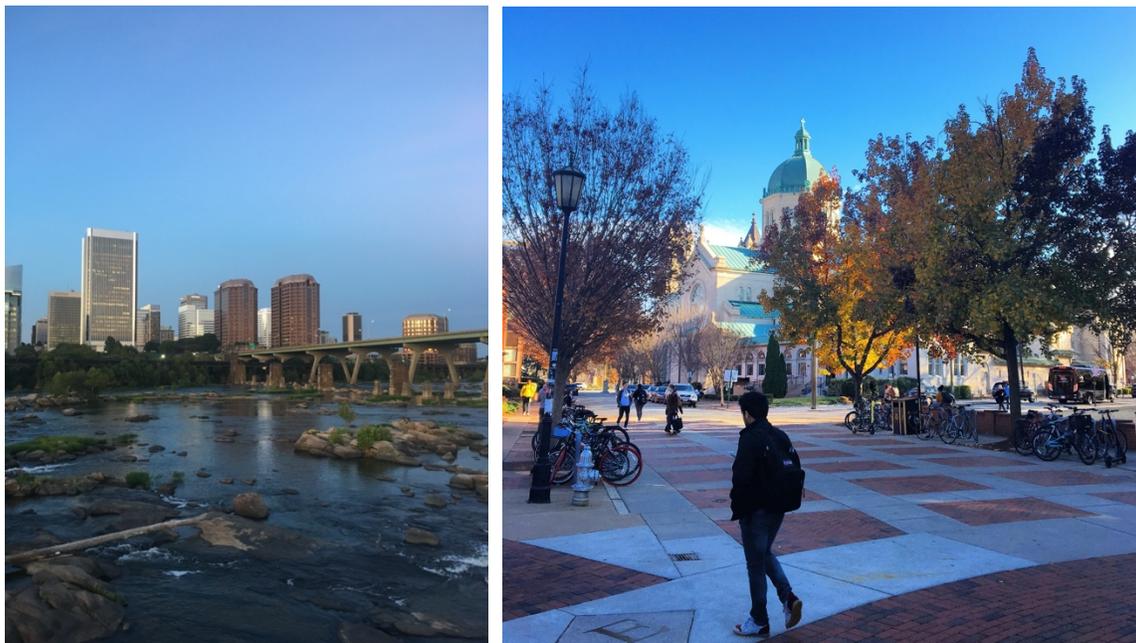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2017125001 연극학 박세현



1. 학교 소개

VCU(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는 미국 버지니아Virginia 주의 주도인 리치몬드 Richmond 에 있습니다. 워싱턴 D.C 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리치몬드 곳곳의 마트를 돌아다니면 항상 VCU MD가 있을 정도로 리치몬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종합대학교로 일반적인 학과부터 예술대학과 의과, 간호 대학이 있어 다양한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는 크게 리치몬드 시청사 옆에 있는 의학캠퍼스와 그 나머지가 한 곳에 모여있는 먼로 파크 캠퍼스로 나뉘져 있습니다.

2. 준비과정

VCU로 파견이 결정되면 담당자가 DS-2019 를 보내줍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비자 신청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비자 신청 준비를 검색하면 이런저런 정보들이 나와서 참고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비자 준비 서류와 함께 안내문도 같이 오니 참고해서 도착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기숙사 도착 전에 담당자에게 언제쯤 도착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었고, 한 학기 동안 자전거를 이용할 것인지, 기숙사는 2인 1실을 쓸 것인지 1인 1실을 쓸 것인지 등 계속 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미국 도착해서는 우버를 타고 WGN(기숙사)로 바로 들어가서 입학절차를 밟았습니다. OT에서는 다른 교환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비자확인이나 수강신청,

학교생활이나 시설 이용법에 대해 듣습니다. 학생증도 이날 만들게 됩니다. 당일이나 몇일 이후에 주변에 Target 등 으로 밴을 타고 쇼핑 트립을 함께 다녀오기도 합니다.



3. 학교수업

-수강신청: 수강 편람을 참고해서 교환학생 신청서에 수강 희망 과목을 미리 적어내는데, 시작 전 e-Service에 들어가면 그 중에서 신청되어 있는 몇 과목이 떠 있습니다. 보통 전공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은 교환학생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신청해줍니다. 그런 수업은 인터넷으로 취소하면 다시 신청하기 어려우니 잘 살펴야 합니다. 그 외에 열려있는 수업들은 수강신청 기간에 빈자리가 있다면 신청하고 드롭할 수 있습니다. 수업 전에 학생회에서 신입생들에게 강의실 위치를 파악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업: 강의 수업 등은 한국과 유사합니다. 실기가 많은 수업은 Studio Fee를 따로 내야하기도 합니다. 저는 Intro to Ceramics를 들었는데 \$50 정도였습니다. 첫날 수업에 가면 Syllabus 를 나눠주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중간이나 기말 시험은 각 수업마다 다르게 진행됩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어서 보는 시험의 경우 OMR 카드 같은 종이는 교수가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주변 서점에 가서 사서 준비해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과서는 아마존프라임을 이용해 빌릴 수도 있고 주변 서점에서 빌릴 수도 있습니다. 비싸서 안 사거나 빌리지 않는 학생들도 꽤나 있긴 했습니다.

글쓰기 과제 등의 첨삭을 받고 싶을 때는 Writing Center를 예약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혹시 어려움을 느끼는 수업이 있다면 Tutor도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4. 생활

기숙사는 주방과 거실이 있는 한 집에 방을 나눠 쓰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WGN에는 방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서 세제만 사서 사용했습니다. 저는 Meal Plan 제일 낮은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충전카드처럼 쓰는 Dining Dollar와 식권처럼 쓰는 Swipe로 나눠 있는데 받아주는 시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것을 선택했는데 학교 관련 식당이 아닌 곳에서 사먹고 기숙사 주방에서 요리해서 먹기도 해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식재료는 Kroger로 들어가거나 Ramsafe를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보통 학기가 뒤로 갈수록 바빠져 점점 시간이 없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시설들이 매우 많아서 이용하기를 추천합니다. Rec Sport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운동 프로그램이 있고 무료인 것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Cary Street Gym 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암벽등반장과 수영장 그리고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VCU Telegram 을 통해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에 동아리 홍보전등에서 대부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혹시나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걱정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유용하게 이용한 곳은 Student Health Care Center 입니다. 동네에 있는 병원 같은 시스템인데 학생에게는 진료가 무료입니다. 언제든지 이런저런 검사를 받거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포탈로 예약을 하거나 급한 경우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James Cabell Library는 캠퍼스 중앙에 위치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인쇄를 하거나 책을 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하에 내려가면 VR 기기나, 3D프린터, 미싱기계나 공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24시간 항상 열려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 스타벅스도 꽤나 늦은 시간까지 열려있습니다.

-Student Commons는 일종의 학생회관으로 게임룸(PS4나 닌텐도 등을 빌릴 수 있습니다.)이나 회의실 같이 곳곳에 유용한 공간들을 잘 찾아서 활용하면 됩니다.

-학교 캠퍼스 안의 치안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지만, 딱 도서관에서, 멀게는 Gym에서 기숙사까지 길만 밤에 다니기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Broadway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불안했습니다.

5. 관광

리치몬드는 도시를 따라 흐르는 제임스 강변이나, 강 한 가운데 있는 벨 아일랜드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강가의 유심이 느린 곳에서 수영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유적지들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관광을 하고 싶다면 차를 타고 멀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버지니아 동쪽 끝에 있는 버지니아 비치로 해수욕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의 식민지역사나 건국 역사를 살피기 위해선 가까운 윌리엄스버그를 추천합니다. 워싱턴 D.C. 까지 얼마 걸리지 않아서 다녀오기 편합니다. 학교 교환학생들을 위해서 버지니아 비치에 가거나, 사과 농장, 아니면 롤러코스터가 많은 놀이공원인 Kings Dominion 으로 가는 트립 등을 기획해주기도 하니까 미리미리 신청해서 참여하면 저렴하고 편하게 갔다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할로윈 때 우버로 20분 정도 걸리는 공포체험 이벤트(Red Vein)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꽤나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 입니다.

6. 마치며

저는 한여종과는 또 다른 대학생활을 경험해보고 갈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부족한 회화 실력에 좌절도 해보고, 한 없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 또한 넘을 수 있는 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도 정말 열심히 들었고 그만큼 얻어갈 수 있는 수업들이었습니다. 캠퍼스 안에 있을 때면 상당히 자유롭게 느껴져서 그 자유로움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도 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제게 동기부여로 작용해서 하고 싶은 것이 더 많고 내실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비용과 시간 둘 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 학기동안 VCU에서 지내면서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장비나 시설들이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또, 리치몬드 자체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학교 생활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VCU에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최대한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